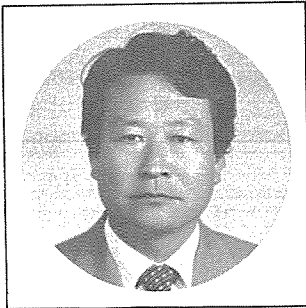


건

망

증



오진곤

〈全北大 自然大교수·科學史〉

남편 뒷바라지 할라, 아이들 키우고 가르칠라, 시부모 눈치 살피라, 친정부도 생각할라, 친구만나 세상물정 들으라, 요즘은 주부들은 여간 바쁜 게 아니다.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로할 것이다. 게다가 고3짜리가 있을 때는 방금이라도 쓰러지기 직전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년 부인층에는 건망증 증세가 많이 나타나 보인다. 건망증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느낌이 감돌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진다.

결혼한지 25년이 지난 요즘 우리집 사람의 건망증이 점차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증세가 다양하며 나타나는 주기도 점차 짧아 가는 듯 싶다. 그 모두를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것 몇가지는 지금도 생생하다.

어느 날 저녁무렵, 찬거리를 준비하려고 가까운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는 집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창문 너머로 보았다. 무엇인가를 한아름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기대를 하여 보았다. 그런데 아침에 차려졌던 식탁위의 찬과 조금도 다름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식사도중에 조금 전 장보기한 반찬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집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재차 물어 보았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저녁을 먹고난 뒤에서야 집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전에 장보기한 찬거리를 어디 두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본인 자신도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집사람을 도와서 집안 여러 곳을 찾아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다. 자신을 체질직하고 허탈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방 한구석에 앉아 있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니 안되었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잠이 들려고 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알았다. 그렇지” 하며 일어나는 집사람의 모습에 내 자신도 놀라면서 눈을 떴다. 한 밤중 집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현관문을 나갔다. 그리고 얼마후에 실망과 웃음이 섞인 모습으로 현관문을 들어선 집사람은 점차 표정이 밝아지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궁금한 일이 아닌가.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찬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휴지가 많이 널려 있어서 찬거리를 옆에 끼고서 휴지를 주운 뒤에 쓰레기통에 가서 휴지를 버리면서 찬거리도 함께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정도는 다반사이다.

추석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생각나는 집사람의 건망증 행각은 조금은 심한 편이다. 일찌기 도시 근교에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불가피 승용차를 장만하였다. 어느 해, 추석 전날 송편을 빚을 생각으로 방앗간에서 떡가루를 작만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판 소동이 벌어졌다.

마침 집사람이 차를 몰고 오는 데 뒤따라 오던 택시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무엇인가를 싸인하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 싸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수 없어서 계속 차를 몰았다.

초보운전이어서 속도가 느렸기 때문인줄 알고서 집사람에게 길을 양보하라고 하였다. 길을 양보해 주었는데도 뒤에 따라오던 택시가 이번에는 비상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접근하고, 우리 승용차의 위쪽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폭소를 터트리지 않는다. 차를 멈추고 내렸다. 이게 웬 일인가. 승용차 지붕위에 떡가루가 담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지 않은가. 떨어질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택시기사가 아니었다라면 송편은 커녕 길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집사람이 차 지붕위에 떡가루 그릇을 그대로 놓은 채 곧바로 출발했던 것이다.

이래 저래 집사람의 건망증은 주변 사람들에

게 꽤 알려져 있다. 거기에다 둘째 놈 마저 모계를 닮아서인지 건망증이 가끔 나타난다. 한쪽발에 양말 두 짝 겹쳐서 신기, 내의를 갈아 입을 때 현옷을 벗지도 않고 새옷을 겹쳐서 입기, 자기 책가방 대신 형의 책가방을 바꿔가기 등 꽤 다양하다.

둘째 놈이 건망증을 보일 때마다 집사람은 심하게 꾸짖는다. “젊은 놈이 벌써부터” 하고 이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두 사람을 위로해 준다. “뉴우튼도 젊었을 때부터 건망증이 대단했지. 하지만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지.”

건망증하면 뉴우튼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학교 시절, 학교로부터 집으로 가는 길에 급한 언덕길이 있는데, 이 언덕을 오를 때마다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번은 뉴우튼이 말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말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집에 닿을 때까지 말을 끌고 걸어 갔다고 한다.

또 한번은 말을 끌고 가는데 말의 고삐가 풀려서 말 혼자서 집에 왔는데도 뉴우튼은 이를 전혀 모른채 말고삐를 손에 쥔채 집까지 걸어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둘째 놈 하고 얼마간은 엇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대는 엄청나게 빗나갔다. 뉴우튼의 경우는 “집념”이었을 것이고, 둘째 아이놈의 경우는 “주의산만”에서 온 것이 아닐런지.

어떻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집사람의 건망증 때문에 아슬아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그 때마다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진다. 스트레스가 방금이라도 풀리는 듯 싶다.

의학자들이 건망증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건망증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간다. 나는 집사람과 얽힌 웃음거리를 오래전부터 메모해 오고 있다. 어느 기회에 정성껏 정리하여 출판이라도 해볼까 한다.